

## 23. 왕과 짐승 사이

2012. 6. 3.

금빛 새벽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 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4: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며, 사람이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한 말에 존귀에 처한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인지요?

답: 그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동일한 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8:4,5을 한 번 읽으시겠어요.

[시8:4,5]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존귀할 수밖에 없지요. 외모도 존귀하였고, 인격도 존귀했지요. 시8:5에 존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다르”인데, 여러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화려함, 위엄, 아름다움, 예쁨, 뛰어난, 영광스러운, 영예” 등등의 뜻입니다. 사람을 “하다르”하게 하셨다는 것은 한국말로 이런 모든 수식어를 동원한 상태라는 말이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생물에서 서서히 진화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존귀에 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 이 성경구절에는 영화라는 말도 있고 관을 씌웠다는 말도 있는데, 모두 존귀와 관계된 말이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다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지요. 영화라고 번역된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풍부하다는 말이지요. 또 무겁다는 뜻도 있고요. 구약성경에 한 40번쯤 쓰였는데, 영광, 즉 당당한 인물이나 지위를 강조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형

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위엄이 있고 당당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관을 씌웠다는 말은 둘러쌌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둘러싸 두셨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풍채 좋고 인격이 탁월한 왕의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사람은 지구의 통치자로 창조되었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일 때에 바로 지구에 창조된 사람들의 입장을 비유적으로 대표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3. 그러니까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 찬양에 빠지면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군주였지요. 그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정복하였고, 바벨론 도성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그가 성취한 것이지요. 사람은 자립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지요. 자식이 장성했는데도 생활 전반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주눅이 든 모습을 스스로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정신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을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대중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자식을 보는 눈초리로 대하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는 그 장엄한 바벨론 시가지의 내려다 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었지요. 그 순간 그는 사람이 전적으로 창조주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가 가르치는 사상이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존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대답을 얻지 못하면 또 답답합니다. 창조주는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존재의 근원은 알고 싶는데 아무데서도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지요. 결국 진화론이라는 돌파구로 빠진 것인데,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된 것은 인류의 이런 상태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지요.

4.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아주 단정적인데 좀 지나쳤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근본적 상태가 전적으로 창조주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고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지요.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둘러싼 존재이니까요. 처음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이 입는 것과 같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벌거벗었다고 했지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2:25) 그런데 시편 8:5은 영광과 존귀로 둘러싸았다고 했거든요. 이 두 말씀을 조화시켜보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히셨다는 뜻이 됩니다. 영광은 빛과 관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사람은 빛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시편 104:2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빛을 입히신 것이 확실하지요.

5. 빛을 입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어떤 경우일까요?

답: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지요. 성경에 있는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요. 요한복음 1:4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참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지요.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은 피조물들에게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6:15,16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딤후6:15,16]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지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1서 1:5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이 야고보 1:17을 읽어보시지요.

[약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했지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1:4과 같은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인류의 시조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빛을 옷처럼 입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의 뜻이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 참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니까 빛이 사라진 것이지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생명적이 아니고 사망적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치달아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19세기 20시기를 거치면서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발달해서 모든 인류를 짐승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회상이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경우를 많이 대하지요.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가장 고상해집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인정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이 회복되고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도 진화론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존귀에 처한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확실히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6.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는 왕의 존귀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승의 자리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같은 존재인데 창조주께 속해 있느냐 창조주를 떠나느냐에 따라서 왕과 짐승 사이를 오가는 것이네요.

답: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으로 아주 실감나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근 7년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아마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7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단4장의 그 장면을 읽어보지요.

[단4: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예, 왕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의 이런 자랑은 할 만한 것이지요.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들은 1년 후에 왕궁 옥상에서 큰 바벨론을 내려다보았지요. 성경을 읽어보지요. 4:29,30입니다.

[단4:29,30] 열 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왕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성은 대단히 크고 견고하게 건축된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은 현대문명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같다고 보이지 않나요. 현대인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은 상태를 택했다는 것은 참 희한한 아이러니가 아닌지요. 어찌면 그것도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수단인지도 모르겠군요. 인간이 이렇게 미생물이었지만 이렇게 진화해서 이런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다고 자랑

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7. 이야기를 들으니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장명 때문에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바벨론 역사책에 바벨론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세미라미스 여왕이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 4장의 이 기록을 두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공격했지요. 세미라미스는 전설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의 아내였다고 하지만, 또 역사적 사실로는 세미라미스(Semiramis)는 앗수르 왕 아다드니라리 3세(Adad-nirari III)의 모후라고 합니다. 세미라미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요, “세미라미스는 아시리아의 전설상의 여왕이다. 시리아의 여신 데르케트와 어느 시리아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버려져, 비둘기에 의해 교육되었다. 성장한 후, 니네베의 수도를 건축했던 아시리아 왕 니누스의 총애를 받아, 왕자 니뉴아스를 낳았다. 그러나 최후는 니뉴아스에 의해 배반당하게 되었는데, 신탁을 보다 니뉴아스의 모반을 알고 그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비둘기가 되어 승천하였다고 전해진다. 향년 62, 재위는 42년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세미라미스 전설은, 유럽에는 연극과 가극의 소재로 즐겨 사용되게 되었다.”(위키 백과사전)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99년부터 1917년까지 18년 동안 독일인 로버트 콜데바이(Robert Koldewey)가 고대 바벨론 성을 발굴하는데 성공하므로 오히려 다니엘서의 기록이 옳고 고대 그리스 역사가의 기록이 틀렸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발굴에서 나온 점토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시를 크고 웅장하게 건설하고 꾸민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으나 세미라미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임을 고고학이 밝혀온 하나의 개가이지요. 독일 베를린에 버가모 박물관이 있거든요. 2000년에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는 바벨론의 이쉬타 게이트를 발굴하여 원형을 복원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문을 향하여 선 상태에서 왼쪽 측면에 바벨론 건설에 대한 내용이 명각(銘刻)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요. 왕이 자랑할 만했지요.

아무튼 다니엘서의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8.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의 말씀을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증명하시네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묘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5장의 벨사살 왕에 대한 것도 역시 고고학에 의하여 확인된 사건인데, 5장 공부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지요.

사실 19세기에 성경에 대한 부정적 공격이 아주 발달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 공격이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었던지 반론을 제가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군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기록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책 대신에 삽을 들고 성경 기록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애굽 정벌에 나서서 로제타

에서 로제타 비문으로 알려진 비문을 발견하고 판독하게 된 것이 효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욥12:8에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성경은 참으로 기이한 책이지요. 땅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했지요.(눅19:40) 고고학이 바로 땅이 대답하는 것이고 돌들이 외치는 소리이지요. 성경말씀은 다 진실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9. 이제 4장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느부갓네살은 일곱 때 곧 7년을 정신병을 앓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마도 왕자가 대리 왕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미신으로 정신병자의 물건이나 지위를 차지하면 그 사람에게 정신병이 옮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왕위를 탐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떤 교단 사람들은 이 7년을 역사적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예언을 한 내용이 전혀 아니지요. 느부갓네살 개인의 실제적 경험을 말한 것이며 역사적 예언에 대한 표상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때는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경험한 연수이고 그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중성이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조서 내용이 그렇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배하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왕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입니다. 인간 문명 찬양과 숭배에서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인류가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끝내지요.

[단4:35~37]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36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기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배하여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충성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